

原子力發電 없으면 重大에너지위기 逢着 英國 原子力省長官 談話

原子力은 이미 世界經濟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날 西유럽에서는 1986년말 현재 所要電力의 1/3을 商業運轉 原子力發電所에서 공급하였으며, 어떤 國家에서는 發電量의 60% 以上이 原子力에 의한 나라도 있다.

英國의 Alastair Goodlad 原子力省長官은 Foratom會員들에게 “原子力發電의 開發이 중단된다면 西유럽은 중대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에너지 부족의 중대한 국면에 부딪히게 되어 유럽의 경제지속을 위해서는 化石燃料 수출국인 外國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만 될 것이다”라고 言及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世界人口의 증가와 全世界의 年 2%의 에너지産業 伸張率을 갖는 産業發展에 의해서 燃料價格은 계속 상승할 것이며 또한 현재 확인된 석유, 가스 및 석탄의 매장량과 가능매장량도 앞으로 60~90년 이면 거의 바닥이 날 것이라라고 경고하면서 “燃料産業界는 값비싸고 政治的으로 불확실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注力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앞으로는 原子力發電만이 世界經濟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값싸고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先進工業國家의 生活水準은 이것에 달려있고 第3世界의 開發도 原子力發電과 關係가 있는데 그 理由는 先進國들이 原子力路線을 취함으로써 伸張하는 에너지需要를 충족시키는데 尖端技術이 덜 필요한 不足한 化石燃料를 開發途上國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原子力은 이미 世界經濟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날 西유럽에서는 1986년말 현재 所要電力의 1/3을 124基의 商業運轉 原子力發電所에서 공급하였으며, 어떤 國家에서는 發電量의 60% 以上이 原子力에 의한 나라도 있다. 더우기 프랑스는 施設容量 18GW, 西獨은 5GW를 추가로

建設하고 있는데 Goodlad長官은 “英國에는 Sizewell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美國의 原子力産業界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반대자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나 美國에는 運轉中인 原電의 施設容量이 80GW를 넘으며 또한 建設되고 있는 原電도 거의 20GW에 이른다. 따라서 建設中인 原電이 모두 준공되면 美國은 100GW 以上의 施設容量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최근 소련의 고로바초프는 앞으로 10年 동안에 소련의 原電 施設容量은 倍로 增加될 것이라고 밝혔다.

日本은 總發電量의 26%를 原子力發電에 의존하고 있는데 1995년까지는 그 占有率을 35%로 늘리는 계획에 이미 착수하고 있으며 또한 日本政府는 현재 1조달러의 자본으로 原電의 占有率을 거의 60%로 하는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原子力發電은 西유럽國家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供給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英國의 경우를 보면, 만약 原子力發電量을 他電源으로 대체한다면 燃料費의 증가로 인해서 15%의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英國中央電力廳(CEGB)은 밝히고 있다.

Goodlad長官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原子力發電의 是非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이제는 방관할 여유가 없다. 原子力發電만이 우리의 安定된 生活을 위해서 安全하고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供給해 줄 수 있는 유일한 技術이다”라고 강조하였다.